

요절복통
여러네 집
#43. 설 이야기
스튜디오들

설날이 가까워지자 엄마가 공주에서 사는 큰엄마에게 전화를 합니다.

형님, 우리가 삼색나물 할 차례지요?
에? 삼색나물이 아니라 전 할 차례 같디구요?

몇년 전부터 세 며느리가 명절 음식을 나눠 장만하기로 했거든요. 여러엄마가 그 중 막내예요.

당일 모아서 음식을 하다보면 얘기 나눌 시간도 없지 않겠어. 그러니 세 집에서 각자 음식을 나눠서 해오는게 어떨까?
아유 형님.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 나 세 집안 남정네들이 잘 도와주긴 하지만 그래도 하루만에 다 준비하는게 벅하디구요.
저도 찬성이예요. 음식 장만할 때 남자들이 왔다갔다하면 정신도 없고 특히 어머니께서 당시 아들들의 부엌 출입을 안 좋아하시디구요.

킁킁, 그래서 여자의 적은 여자라잖아.
쉬, 조용히 해요. 어머니 들으세요.

이렇게해서 음식을 세 집에서 나눠서 준비하게 됐지요.

그럼 돈이 많이 드는 갈비는 한 집에서 그것만 담당하기로 하고 전과 찌개를 또 한 집에서 하고 남은 삼색나물과 과일 그리고 일품요리를 한 집에서 하기로 해.

일품요리 라니요?
왜 해파리 냉채나 잡채 같은거 있잖아.

덕분에 명절에 시간적 여유가 생겨 옷놀이도 하고 애기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답니다.

웃이야!
웃놀이는 뭐가 나오느냐도 중요하지만 밑밥을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지.

어려엄마는 전과 찌개거리를 준비했습니다.

이건 처음 보는 생선인데...
뭐지? 뭐지?
메로예요. 마트에서 조각내서 팔더라고요.

머느리 중에서 내가 제일 어리고 신세대니까 뭐가 달라도 달라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걸로 찌개를 끓이려고요.

아하, 그러서? 그런데 안 해본건데 괜찮겠어?
오줌은 인터넷 몇번만 검색하면 다 나온다구요. 원래는 내가 일품요리 차례인 줄 알고 월남쌈을 하려고 했었는데 메로찌개 정도야 될...
오우, 존경스런 우리 사모님!
아빠는 꼭 이럴때만 사모님이라고 하디라.
엄마, 컴퓨터 검색은 제가 할게요.

엄마가 찌개거리를 냉장고에 넣어놓고 나서 식구들을 거실로 불렀어요.

자, 이제부터 다같이 마음을 모아 전을 부치는 거예요. 재료는 여기 다 내놓았으니가 아빠는 재료에 달걀알달걀 달걀, 여러래 보리는 부치기 담당, 나는 최중정리 담당.

따블 따블

꿈꿨던 둘째 형님은 전을 이쁘게도 부쳐오시지만 난 그게 잘 안된단 말야.
안 이쁘면 어때. 맛만 있으면 되지. 그리고 우리는 이쁜 것 보다는 양으로 승부할 거지구.
양으로 승부, 양으로!
차가 막혀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일년에 한 번뿐인 설이니까요.

그리고 이 시간이 지나면 세벳돈이 나오니까.
이야, 세벳돈!
세상 참 차마하게 부담스럽다고. 부모가 자식이 있는 곳으로 가는 역귀성이 들고 있디니...
그렇게 말예요. 어떤 집은 아예 휴양지에서 가서 아침에 차를 즐긴다고도 하네요.

말도 안되는 소리. 그러려면 뭐러 차를 지내. 그냥 안하고 말지.
이 양반. 또 흥분했네.

하긴 어쩌면 그런 것도 하나의 콘덴트라 할수도 있기는 하겠지. 그리고 그것이 계속 되다보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힐 수도 있고...
하지만 아직은 아냐. 그리고 아빤 그런거 싫다. 여래, 보리, 너희들 명심해!

왜 괜히 가만히 있는 애들한테 큰소리예요.
미안, 미안. 난 그냥 요즘 사람들 사는 방식이 맘에 안들어서 말야.
하긴 5공화국 시절엔 양력 1월 1일은 설날로 하고 음력 1월 1일은 민속의 날로 하는 해프닝까지 있었으니...
시골 할아버지 데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안녕하셨습니다.
오나, 오나. 어서들 오거라. 고생했다.

어니 동서, 왜 전을 부쳐왔어. 전은 내차려네.
에, 난 또 큰형님이 전이 제 차례인 것 같다고 해서...
어떡해. 가뜰이나 많이 부쳐오기까지 했는데...
하는 수 없이 이번 설은 또 삼색나물과 일품요리를 장만하느라 며느리들이 바빠져야 하겠네요.

자주있는 일이 아니라 자주 햇갈려서 안되겠어. 돌아가면서 하지 말고 아예 음식을 하나씩 맡아서 고정하자구.
그래요. 그게 좋겠어요.
형님들, 시더타기로 정할까요. 심지뽕기로 할까요?
맞아요. 나이만 한 살 더 먹고 조끼들이 커서 세벳돈이 예전 같지 않디라구요.
나도 그래. 조끼들이 커서 세벳돈이 예전 같지 않디라구요.

설 명절, 애들이나 즐겁지 우리야 뉘.
역시 허탈없이 청없는 막내입니다.

이주일의 화두
사나우면 나쁜놈의 찌꺼하고 사나우면 나쁜놈의 찌꺼하고 사나우면 나쁜놈의 찌꺼하고 사나우면 나쁜놈의 찌꺼하고
(장도원주연)

물 없이도 할 수 있는 휘나햇 온열요법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 한번에...OK!

목욕탕 문화가 바뀌었다
물 없이도 할 수 있는 반신욕법

반신욕을 하면 하체의 따뜻한 혈액과 상체의 차가운 혈액사이 대류현상이 일어나 잘순환 된다. 한의학에서 보면 두한족열의 원리로 몸속 노폐물이 땀과 함께배출되기 때문에 신체의 상태가 좋아진다. 휘나햇반신욕기는 3~4년전부터 하루 200~250명씩 무료체험을 하였으며 지금은 유료화에도 불구하고 체험방을 이용하는 체험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이런 장점 때문에 휘나햇 반신욕기는 웃을 입은채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를 동시에 즐길 수 있고 편하아서 책이나 신문 TV등을 볼수 있어 획기적인 반신욕기로 각광을 받고 있다.

휘리건강 (주)는 철, 칼슘, 마그네슘, 셀레늄 등이 든 광물질 30여종 (특허특대 제10-096707호) 발명의 명칭 '세라믹 전기발열체 및 그제조 방법'을 혼합하여 특수제작한 슈퍼블랙디스크를 개발하는데 성공했으며, 이를 자사의 브랜드인 휘나햇 반신욕기에 내장하여 보건진료소, 노인정, 경로당, 한의원, 산후조리원, 복지원, 등에 납품 하고 있고, 2011년에는 가정용을 개발하여 "특별할 인된 가격으로 한가정에 반드시 한 대씩 보급 될것이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
계좌번호: 국민 404601-01-046107
예금주: (주)휘리건강
판매원, 제조원: (주)휘리건강
* 대리점, 취급점, 영업사원모집

암과 현대병을 쉽게 다스리는 방법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건강법

멸종 위기 식물 177호
변비 생리통 특효

"세포의 생성을 촉진하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삼백초 효소 발효액은 심각한 환경오염에 노출된 인체에 건강을 되찾아주는 최고의 처방이다"

노화와 난치병을 이기는 삼백초의 놀라운 효능!
변비, 숙변, 생리통을 없애는 날마다 기분 좋은 건강 비결!
간질환, 당뇨, 신장질환, 동맥경화, 고혈압, 심장병, 부인병, 비만치료!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삼백초에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게르마늄과 남성 성기 등에 중대한 작용을 하는 아연, 기운을 북돋는 유기붕소가 들어있다. 삼백초를 꾸준히 섭취하면 만성피로가 사라질 뿐 아니라 남자의 스테미너가 넘치고 기운이 솟는다!

문의: 070-7804-5358
계좌: 농협 351-0260-3196-83 예금주: 부림출판사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관리법
부림출판사 | 감상목 저음 | 값 5,000원

모리다 요시오 박사와 의사 이토 오사무의 치료 사례- 25,000명을 임상실험한 결과 밝혀진 효소의 놀라운 효과
반건강 상태는 1개월만에 완치 / 정력이 되살아 난다 / 불임이 치유된다 / 기미가 사라진다 / 속취가 없어진다
위궤양이 치료된다 / 무좀이 없어진다 / 치질이 치료된다 / 탈모가 치료된다 / 류머티즘 관절염이 치료된다...